

# [독학 재수 A to Z]

1. 필자 소개
2. 재수 Q&A
3. 과목별 공부 Tip
4. 최상위권 학생은 알고 있는 9가지 내용
5. 인증 자료

## <1. 필자 소개>

안녕하세요. 저는 2024 수능에서 '23344(언미영물I지I 등급) / 89 85 75 70 (언미물I지I 백분위)' 라는 당시 만족하지 못했던 성적과 수시 6광탈을 하고 독학 재수를 통해 2025 수능에서 '21111(언미영물I지I 등급) / 94 98 99 100 (언미물I지I 백분위)' 라는 서울대 공대, 지방 의대 성적을 받은 나름 만족스러운 재수를 한 학생입니다.

제가 재수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된 글을 찾지 못하여 모든 정보들을 따로따로 찾아서 정리하느라 시간을 많이 써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공유하고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.

제가 생각하는 현역 시절 실력은 국어, 수학 2등급 커트라인 영어 2~3등급, 물리 2등급 커트라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

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자량이 아니라 사람마다, 그 사람의 내공(실력)에 따라 공부법이 다르니 해당 내용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수능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입니다.

공부법엔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글의 모든 내용을 맹신하기보다는 '아!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~ 이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은 나한테도 좋을 것 같으니 해볼까?'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

앞으로의 내용은 가독성을 위해 비격식체로 적었습니다.

### <3. 과목별 공부 TIP>

#### [국어]

##### 1. 타이머를 버려라.

눈알 굴리기를 통해 문제를 맞췄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.

지문 속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이해해야 진정으로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.

문제집에 있는 추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빠르게 눈알을 굴려 가며 푸는 것은 독해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1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그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발악할 때 독해력이 오른다.

##### 2. 사전을 적극 활용하라.

조금이라도 뜻이 헛갈리면 바로바로 사전을 통해 뜻과 예문을 익힌다.

지문 속 단어의 뜻만 제대로 다 알고 있다면 지문을 이해하는 건 휘어어어얼씬 쉬워진다.

##### 3. 이해하기.

국어는 지문 속 내용을 외우는 과목이 아니다. '이해가 최고의 암기다.'라는 말처럼 지문 속 내용을 이해하기만 하면 저절로 외워지고 문제는 풀린다.

이해하는 것도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다. 기출에 있는 수많은 지문들을 통해 천천히 하나씩 이해하는 힘을 길러라.

##### 4. 기출 문제 풀기.

사설 콘텐츠 (이감, 상상, 바탕, 한수 등)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험지 하나에 추천, 수억을 쓰는 평가원 지문보다 좋을 수는 없다. 평가원 지문만 해도 차고 넘치니 다른 것 보다 평가원 지문을 먼저 하자.

(필자도 9월까지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보는 시험을 제외하고 평가원 기출만 풀었는데, 전부 다 끝내지는 못했음.)

#### <추천 교재>

너를 국어 일등급으로 만들어주마 (국일만) - 범작가 (2025 개정판부터 '국정원'으로 이름 변경)

국어의 본질을 말해주는 책. 해당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국어의 본질이다.

### **<추천 강사>**

심찬우T

국어의 본질을 가르치는 강사. 유튜브에 수업 영상이 많으니 몇 개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듣는 것 추천.